

‘예술인보듬·소통센터’ 확대·지역 도서전

■광주문화재단 을 사업 계획

사라져가는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문화마을 코디네이터 사업
광주형 장애인예술지원사업 추진
온·오프라인 플랫폼 확대도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지역문화 가치를 확산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최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문화재단)은 올해 예술인보듬소통센터를 확대하고 지역의 사라져가는 문화예술콘텐츠를 발굴, 기록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문화재단은 창립 11주년을 맞는 올 주제를 ‘예술인을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문화허브’로 정했다. 문화재단이 발표한 계획안에는 예술인 지원 및 복지서비스 대폭 확장, 지역문화가치 전국적 확산, 온·오프라인 플랫폼-네트워크 확대가 포함돼 있다.

먼저 문화재단은 수요자 중심의 예술현장 지원 체계를 확장한다.

지난해 신설한 ‘예술인보듬·소통센터’를 본부 단위로 확대하고 기존 창작지원팀 이외에 예술복지팀을 신설 배치해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예술인을 위한 활동중명, 신청대행 등 예술인 복지장구 외에 ‘예술상담실ON:결’에 도본격 운영해 창작기획과 세무회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광주형 장애인예술지원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을 받아 3개월(2019-2021)으로 추진된 ‘광주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예술날개)’을 올해는 시비를 확보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형 문화메세나운동’은 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시민·기업·함께 문화동행’이라는 형태로 후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역문화가치의 전국적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라져가는 문화예술콘텐츠를 발굴하고 기록해 그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광주학 콜로키움’과 동네책방 연계 프로그램은 ‘광주문화자산구축사업’으로 통합해 추진되며 사라져가는 무형 구술자원을 기록하기 위한 ‘광주문화예술 기록화’를 위한 ‘문화예술인아카이브’는 향후 서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문화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광주의 산증인 고(故) 박선홍 선생의 ‘광주1백년 1·3’ 지적 재산권을 양도받아 개정증보판 책자와 향토사학자 김정호 선생의 ‘광주산책’ 개정증보판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또한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의 연구자료를 모은 ‘광주 최초를 찾아라’ 영상 작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국의 지역출판물과 독서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광주동구 한국지역도서전’도 개최된다. 지난해 6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시 동구와 한국지역출판연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아울러 마을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비롯해 중장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문화마을 코디네이터 사업’도 펼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과 네트워크도 본격 확대된다. 문화예술 정보 공유와 교류를 견인하는 문화예술통합플

랫폼 ‘디어 마이 광주’가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된다. ‘디어 마이 광주’는 문화예술행사 정보는 물론 이용자 and 아티스트의 계정, 작품을 감상 및 구매할 수 있는 아트 스토어 등을 담은 커뮤니티형 플랫폼이다.

지역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사업도 올해 시작한다. 오는 4월 ‘문화예술 정책동향 파악 세미나 포럼’, 9월 ‘아트마켓+예술인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재단의 광주문화정책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문화정책(정책워크숍) 발간대 프로그램’, ‘정책 네트워크 담론지 발간’ 등도 진행해 지역 문화정책 컨트롤러 역할을 담당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미디어아트 특화공간을 상설운영하며 ‘홀로그램극장’은 작가를 창작공간, ‘미디어338’은 국제제지던시 전시공간 등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무등올림픽제와 무등산 천체 행사 외에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문화콘텐츠 뮤지컬 ‘광주’(시즌3) 추진과 창작관현악곡 국내외 연주회, 민주주의 상징곡 국제학술행사 등도 추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정시 그리고 바람직한 시인의 모습은?

염창권 광주교대 교수

평론집 ‘몽유의 시학’ 펴내

“시의 진정성은 시인의 성실한 자세에서 비롯된다. 시인은 우선 대상을 존중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 심층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추구를 통해 마침내 대상과 합치하였을 때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언어로 명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염창권 광주교대 교수가 평론집 ‘몽유의 시학’(아름·사진)을 펴냈다.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인이 학문적 세계를 그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일은 또 다른 창조 영역이다. 염 시인의 이번 책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깊이 있는 성찰이 어우러져 있다.

이번 평론집에서 저자는 우리시대의 시적 논리와 시인들에 대한 상징적 기표로 ‘몽유(夢遊)’를 떠올린다. 다시 말해 사회적 유포아 또는 아름다운 유포아보다 낮음이라는 인식체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또한 저자가 상징하는 시, 특히 서정시에 대한 관점과 오늘날 요구되는 바람직한 시인의 모습 등



이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시론에 해당하는 글, 해설, 서평, 작품론, 단평을 비롯해 논문 등 다양한 글이 ‘시’라는 장르에 수렴된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시의 의미’, 2부 ‘바람직한 시인의 방’, 3부 ‘몽유의 발목들’, 4부 ‘새의 영혼’, 5부 ‘시의 현장과 원탁시 동인’, 6부 ‘시가 만드는 풍경’ 등이다.

전체적으로 글들은 주제비평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심리 비평이나 문학의 사회사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시인은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과 환경, 그리고 시인들을 만나고 또 어찌 다른 말을 새롭게 배워 보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출판의 염 시인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로 등단했으며 ‘겨레시조’ 평론으로 문단에 나왔다. 지금까지 시집 ‘그리움이 때로 힘이 된다’ 등 4집과 시조집 ‘햇살의 길’ 등을 펴냈으며 노산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니뮤직,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앨범 발매

‘박쥐’ 서곡 등 19곡 수록

다니엘 바렌보임 지휘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올해 신년 음악회 앨범(시디)이 지난 14일 소니뮤직에서 발매됐다.

빈 필하모닉은 지난 1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 페라인 황궁홀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지휘로 연주했고, 이 공연은 90여 개국에 TV·라디오로 생중계됐다.

CD 2장으로 구성된 앨범에는 공연에서 선보인 초연 작품 6곡을 포함해 19곡이 수록됐다.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불사조 행진곡’과 ‘사이렌’,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 칼 미하엘 지러의 ‘밤 부엉이’ 등이 담겼다.



공연 실황은 다음 달 DVD와 블루레이, LP로도 만날 수 있다.

한편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는 1941년 초연 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신년 행사다. 오스트리아 빈의 공연장 ‘무지크페라인’ 황궁홀에서 열리는 전 세계에 희망과 우정, 평화를 전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90여 개국에서 TV 및 라디오를 통해 중계되며, 매년 5000만명 가까운 시청자를 기록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해 국민 독서량 ‘뚝’...2년 전보다 성인 3권·학생 6.6권 ↓

문체부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성인 평균 독서량 4.5권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과 학생의 독서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9월~2021년 8월)간 종이책과 전자책·소리책(오디오북)을 합한 성인의 평균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 조사 때보다 3권 줄었다.

지난 1년간 일반 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인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로 8.2%포인트 감소했다.

초·중·고교 학생은 연간 종합 독서량(교과서·참

고서 등 제외)이 34.4권, 종합 독서율이 91.4%로 2019년보다 독서량은 6.6권, 독서율은 0.7%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20대 청년층(만 19~29세) 독서율은 78.1%로 2019년보다 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모든 성인 연령층과 비교해 높은 독서율과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로 2019년보다 각각 11.4%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로 2019년보다 각각 2.5% 포인트, 11.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학생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자책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은 4.5%, 학생은 14.3%로 2019년보다 성인은 1%포인트 소폭 증

가했고, 학생은 4.4%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독서 생활 변화’와 관련해선 성인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학생은 독서량, 종이책 독서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모두 40% 이상이었다.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26.2%)을 주로 꼽았다. 학생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23.7%)를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답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 독서율은 50대는 35.7%, 60세 이상은 23.8%로 2019년보다 각각 9.2%포인트, 8.6%포인트 하락해 지속적인 감소세였다.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전남대 ‘BK21 영어권 연구단’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해외 전문가의 시각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몸·기억’ 감수성의 철학적 배경을 탐구하는 해외 석학 초청세미나가 열린다.

전남대 ‘BK21 영어권 문화기억 교육연구단’(이하 영어영문학과 BK21교육연구단·단장 김연민)이 미국 보스턴 칼리지 철학과 리처드 케니 교수를 초청해 ‘타자와 기억’을 주제로 온라인 블록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1, 26, 27일 동안 ‘대륙철학’(인식론, 현상학), ‘타자’를 주제로 진행되며 ‘문화기억’을 해외전문가의 시각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케니 교수는 ‘이방인, 신, 괴물’ 등 24권에 달하는 유럽 철학과 문학 관련 저서를 출판했으며 최신작 ‘타자’(2021)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실한 것들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영어영문학과 BK21교육연구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학원생의 취업 및 전공 역량을 높이고 문화기억 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062-530-066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